



선전물 · 포장인쇄 고속성장

■ GDP 밀도는 성장률

미국의 최근 GDP는 과거 십 수년에 걸쳐 계속 신장되고 있다. 인쇄물의 총 매상고도 이에 비례해 신장돼 왔으나 최근의 신장률은 GDP를 밀돌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잡지인 American Printer가 NAPL(National Assn. for Printing Leadership)의 조사 결과를 기초로 GDP와 RPS(Real Print Sales · 매상고)의 80년대 이후 신장률을 비교한 결과, 1990년대 전반까지는 RPS의 신장률이 GDP를 상회하고 있었지만 90년대 후반부터는 GDP의 신장률을 밀둔 것으로 나타났다.

1985년부터 89년은 GDP가 3.4%, RPS가 4.5%였지만, 1990년부터 97년은 GDP가 2.3%, RPS가 2.1%로 역전되었고 1998년부터 99년에는 GDP가 3.9%인데 반해 RPS는 1.5%로 그 차이가 더 커졌다.

NAPL은 이같은 원인에 대해 첫째 CD-ROM,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전자매체의 영향, 둘째 합병, 아웃소싱, 규모의 축소 등 발주자측의 비즈니스 변화, 셋째 소량다품종인쇄, 단납기 인쇄 등의 인쇄에 대한 요구변화 등 세가지를 꼽았다.

PIA(Printing Industries of America : 미국인쇄공업회)는 이 세가지 사항이 인쇄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선 인터넷이 인쇄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현재 좋은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35.8%, 영향 없다 52.4%,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11.8%, 향후 5년간 좋은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59.4%, 영향 없을 것이다 10.3%, 나쁜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30.3% 등으로 나타나

비교적 낙관적이었다. 그 배경에는 '인터넷광고는 현재 연간 75% 성장하고 있지만, 광고 총액에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적다. 또 새로운 상업적인 면이 증가함으로서 감소하는 인쇄 수요도 있지만, 그 이상의 수요증가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또 발주자측의 비즈니스 변화가 미치는 영향 및 소량다품종인쇄, 단납인쇄 등의 인쇄수요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도 현재 좋은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25.9%, 영향 없다 45.7%,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28.4%, 향후 5년간 좋은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38.3%, 영향 없다 34.9%, 나쁜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26.8%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소량화, 퍼스널컴퓨터화, 온라인화 등 수요자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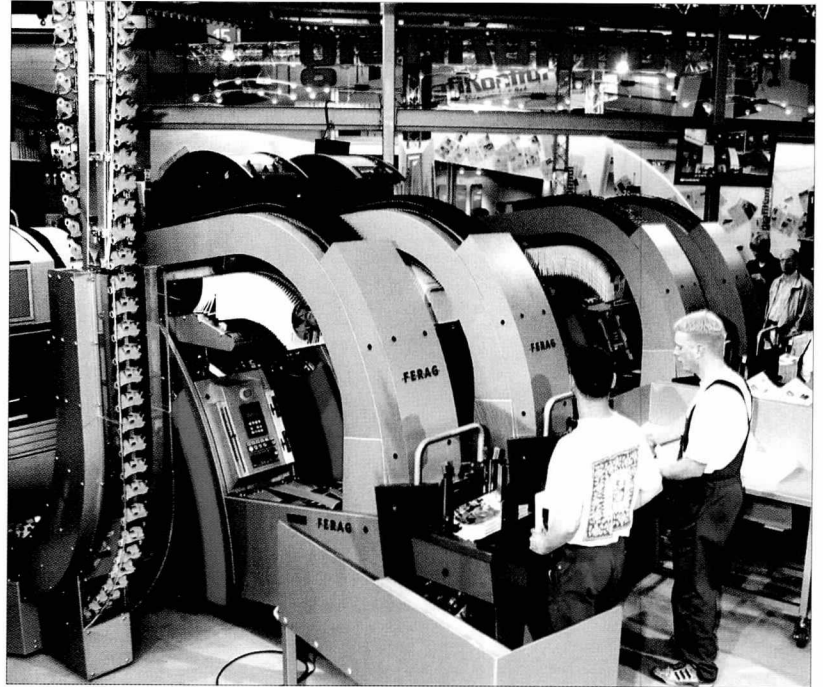
3년 이내 전자상거래 10%상회 전망

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 좋은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35.9%, 영향 없다 38.9%,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25.1%, 향후 5년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48.4%, 영향 없다 23.5%,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8.1% 등으로 응답했다.

이같은 결과는 향후 나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기업이 약 70%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집약할 수 있지만, 향후에도 30% 가까운 기업이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비관적

인 전망도 나왔다. 「좋은 전망」보다 「악영향」이 강하면 당연히 인쇄산업 전체의 매상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된다. 인쇄물이 전자매체로 전환되거나 인쇄 부수의 소량화가 진행되거나 하는 것의 악영향이 신규수요를 상회하면, 전체 인쇄물량의 신장률이 GDP를 밀도는 것이 된다.

PIA에 의하면 시장별 매상증가율에서도 99년은 종래의 프리프레스는 -3.4%, 서적·잡지가 1% 미만의 신장세를 보였지만 전자 프리프레스, 매뉴얼, 다이렉트 메일은 7% 이상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 미국의 인쇄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GDP에는 밀리고 있다.

■ 전자상거래의 진전

전자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경비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메이커의 부품구입에서는 온라인 마켓에 의해 「활발한 경쟁과 입찰자의 증가, 그리고 발주 전의 테이블교섭이 불필요」하다는 경비절감 효과가 있다. B2C의 온라인쇼핑에 있어서도 저가격화가 보이며, 서적이나 CD의 인터넷가격은 배송비를 고려하더라도 9~16% 낮다고 한다.

ImageX.com은 Corporate Online Printing Center, Small Business Printing Center, PrintBid.com의 3개의 전자상거래사이트를 운영, 3,800개사에 이르는 인쇄물 발주자와 4,000개사 이상의 인쇄회사가 이용하고 있다.

비용절감 효과로서 「연간 1인당 6만7천 달러의 비용이 드는 영업사원의 근무시간 40%는 원고 및 교정의 왕래나 그 외에 일의 진행을 관리하기 위해 허비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활용하면 이것들의 낭비를 줄여 산업 전체에서 연간 160억 달러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본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북미 인쇄업 대메이커 4사(R.R.Donnellely, Quebecor World, Quad/Graphics, Banta Corp.)도 2000년 5월에 4사가 협력해 효율적인 공급망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비용절감은 이익증진으로 연결되지만, 인쇄가격으로의 전가라는 형태로 저가격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수요의 증가를 따라가지 않으면 매상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인터넷 발전’ 인쇄업에 긍정 효과

인쇄산업에서도 전자상거래의 활용이 추진되고 있다. 제지업의 대메이커 3사(Georgia Pacific, International Paper, Weyerhaeuser)는 2000년 3월 하순에 용지·펄프 B2B시장을 만들어 종이나 펄프의 매매를 온라인 상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인쇄 거래에 있어서도 향후 2~3년 안에 10%는 전자상거래로 이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Raine Consulting, Inc). 인쇄용 자재의 전자상거래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 인쇄수요의 변화

이러한 비즈니스의 변화에 의해 유통·상품관리에 따른 인쇄물의 감소나 광고 선전매체로서의 인쇄 수요의 감퇴를 생각할 수 있다.

어느 한 인쇄 컨설턴트는 작년 9월 강연에서 미국의 인쇄

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미국의 인쇄업은 과거 수년간 지금까지 없던 성장을 이루고, 종업원 수도 늘고 있지만 인구 증가에는 비례하지 않고 있다. 과거 3~4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몇 개의 회사는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온디맨드인쇄도 도입되었다. 그것에 의해 매출은 증대됐지만, 평균적으로 종업원 수는 대략 20% 정도 감소했다」 「이 업계의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3-3.5%로 수년 전의 평균치와 비교해 25%나 낮다. 공개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매년 손실을 내고 있는 기업은 20% 정도이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므로써 신장되고 있는 기업도 많다. 몬트리올에 있는 한 회사는 필름 등을 디지털 화일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급성장을 이뤄 세계 최대의 인쇄회사를 상회할 정도의 규모가 되었다고 한다.

PIA가 인쇄분야별 금년 1/4분기의 전년대비 성장률 및 향후 12개월의 성장률 예측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분야별 성장률의 경우 향후 GDP 성장률 예측이 4.4%라는 고성장을 배경으로 각 시장분야의 성장예측은 전반적으로 플러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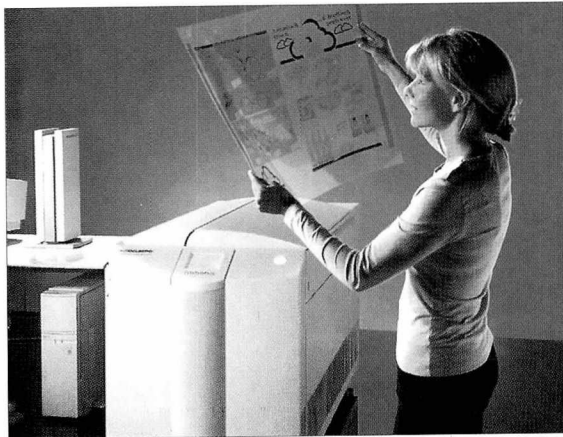
〈표〉 분야별 성장률

시장분야	2000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향후 12개월 간의 성장률 예측
전자 프리프레스서비스	8.7%	10.4%
다이렉트 메일	6.7%	7.6%
상업광고/선전	5.9%	8.0%
포장인쇄	5.5%	6.8%
간이·단납인쇄	4.5%	5.5%
서적인쇄	3.8%	5.7%
매뉴얼류	3.6%	5.2%
카탈로그, 명함류	3.5%	5.4%
잡지류	2.8%	4.7%
라벨/포장지	2.8%	3.8%
연감류	0.7%	3.5%
비즈니스폼	0.5%	1.4%
전통의 프리프레스서비스	-3.5%	-4.3%

그 중에서도 전자 프리프레스서비스가 2자리수의 성장을 이룬 외에 다이렉트 메일, 상업광고/선전, 포장인쇄도 고성장을 계속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낮은 성장밖에 바랄 수 없는 분야에는 지금까지 주요한 인쇄시장분야였던 것이 많아 시장의 변화를 간파할 수 있다. ↻

홈페이지 : www.newskp.co.kr

부가가치 창출! '투자비 절감' 이 관건입니다



고가의 장비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중고기기로도 훌륭한 제품을 생산하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중고인쇄기기 및 프리프레스 장비 전문공급 업체인 뉴에스케이피와 상의 하시면 그 길이 보십니다.”

(주)뉴에스케이피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8-19 진성빌딩 301
전화:2279-0919 팩스:2271-1221 홈페이지:www.newskp.co.kr

취급 품목 각종 인쇄기·컴퓨터기기 일체
· 프리프레스장비